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제19대 대선 D-16일인 23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주민센터에서 선거관리 관계자들이 유권자 가정에 보내질 대선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 폭풍 유세전

민주당, 인지도 높은 국회의원들 지역 투입 총공세
국민의당, 지역 국회의원 총동원 '안풍' 재확산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 2주째를 맞아 이번 주중 야권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총력전을 펼치며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 당은 다음 주(5월1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 데다 사전투표일이 다음달 4~5일인 만큼 실질적 선거운동 기간이 1주일 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호남 폭풍 유세전'을 펼치며 막판 표심잡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호남지원단을 구성해 호남 출신 국회의원 및 호남에서 인지도가 높은 국회의원 대거 호남에 집중 투입한다.

현역 의원들에게는 총동원령을 내려 야권의 텃밭이자,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에서 득표율을 최대한 올리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역 의원들은 지방의원들 및 선거운동원과 함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낮다고 판단되는 60대 이상 유권자 공략을 위해 경로당과 전통시장, 다중 집합소를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중에는 광주시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이해찬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중량급 인사들을 투입해 릴레이 유세전도 펼친다.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광주·전남 추가 대선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 문재인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다시 광주로 내려와 광주·전남을 돌며 후보 지원에 나선다.

국민의당도 이번 주중 호남에 총공세를 펼친다. 안철수 후보가 24일 직접 광주와 전남 서부권을 돌리며 '안풍(安風) 재확산'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목포로 내려와 목포역 광장에서 총력 유세를 펼친데 이어 합평공용터미널 앞, 나주 혁신도시 KDN 사거리, 전남대 후문 유세를 하며 지지 호소한다.

선거 중반 주춤해진 '안풍'을 진원지인 호남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수도권과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현역 국회의원 39명 중 호남지역 국회의원 14명 대부분인 만큼 '안방 사수' 작전에 올인하며 호남 판세 굳히기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선거 초반 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지역에 국회의원들을 집중 투입하는 전략 탓에 오히려 호남지역에 비해 지지율이 예상 밖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호남에 국회의원 의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민주당은 선거 초반부터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을 대거 호남에 내려보내 유권자 표심을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24일 안 후보의 광주·전남 유세에 맞춰 이번 주중 지역 국회의원들을 모두 '하방'시켜 국회의원 선거구 중심의 필수 전략을 펼친다.

/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北風 ... 돌풍 될까 역풍 불까

Ⓢ '선택 2017' 대선 D-15
장미대선 중반 변수

공식 선거전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대선판도가 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기사 3·4·5면〉
대선전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구도'로 막을 올렸으나, 최근 안 후보의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두 사람 간 격차가 다소 벌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지지율이 잠시 조정기에 들어갔을 뿐 이번 주중 다시 상승하면서 문 후보의 지지율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추이 속에 지난 주말 '송민순 문건' 파문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자서전 '돼지 흥분제' 논란이 일면서 대선정국이 다시 술렁거리고 있다. 더욱이 막판 중도 후보 단일화와 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선거 막판까지 선거구도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송민순 문건, 홍준표 '돼지흥분제' 논란=선거구도가 변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2007년 11

'송민순 문건' 쟁점 ... 文측 '기권 결정' 자료 내고 반박
홍준표 '성범죄 모의' 논란·보수후보 단일화 여부 변수

월 노무현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 표결 기권에 앞서 북한에 사전 문의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라며 문건을 제시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파문은 '주적 논란'에 이은 또 다른 안보 쟁점으로 문재인 후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이에 문 후보 측은 23일 보수정당의 공격을 '북한필리'로 규정하고 송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2007년 11월16일에 당시 노 대통령에게 기권을 이미 결정했다는 내용이 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돼지 흥분제' 논란은 보수층의 지지를 회복하고 있는 홍 후보에게 위협 요소다. 홍 후보는 "어릴 때 저질렀던 잘못으로 그 당시 크게 반성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파문이 쉬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수층이 주된 지지층인 홍 후보의 지지세가 빠질 경우 국민의당 안 후보 지지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어 주목된다.

◇후보 간 연대 가능성=사실상 물 건 나간 것으로 여겨졌던 보수·중도 후보 단

일화 또는 '반문'(반문재인) 선거연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 후보의 합종연횡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진원지는 바른정당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 후보의 지지율이 3% 선을 벗어나지 못하자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21일 총 33명의 소속의원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16명이 의원총회를 개최하자는 요구로 표출됐다. 바른정당은 이번 주초까지 의중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고록 망언 전두환 범정 세운다 ▶6면
광주 금남로에 문화꽃이 활짝 ▶17면
함께 걸어요... '북한 문화유산' ▶18면

현재 바른정당 의원들은 유 후보에 가까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완주 세력과 안 후보와 연대해야 한다는 세력, 또 나머지는 한국당 복귀를 원하는 세력으로 3등분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른정당이 당내 갈등을 잘 정리하면 단일화 논란은 수그러들겠지만, 파열음이 커져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이탈할 경우 유 후보의 입지는 더욱 위축되고 남은 대선 레이스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투표용지 인쇄 시점 직전인 29일이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제3차대에 머물고 있는 김종진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정은찬 전 국무총리,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거취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들이 문 후보나 안 후보 측으로 갈 경우 선거구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재고 쌀 351만 ... 적정량의 4배 넘어

해마다 쌀 소비가 크게 줄면서 국내 쌀 재고가 역대 최고 물량인 351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양곡 재고만 233만에 달하고 여기에 민간 재고도 118만이나 쌓여 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 1970년 재고량은 32만에 불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쌀 재고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적정 재고량 80만톤을 4배 이상 웃돈다. 지난해 정부양곡·민간 재고량은 280만 정도였다.

쌀 생산량은 2010년 430만에서 2012년 401만, 2014년 424만, 2015년 432만 7000t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419만 7000t을 수확했다.

반면 쌀 소비량은 급격히 줄고 있다. 2006년 78.8kg이었던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61.9kg으로 10년 사이 20% 넘게 감소했다. 연간 소비량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390만~395만기량이이다.

정부는 '공급은 축소하고 수요는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재고는 오히려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HNT 하나투어

무안↔하노이 직항
하노이·하롱베이

6월 3일(토)~8월 14일(월) | 3박5일
비엠펙항공(VJ항공) : 19항차 운영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062) 228-1199

<p>하나Pack 캐주얼 AVPF11_VJ2 하롱베이 비경관광(\$50상당) 하노이·하롱베이·엔프 5일</p> <p>총 상품가격 799,000원~ 현지지출: 가이드+기사장비 \$40/선택장비 있음</p> <p>☎ 호텔: 4성급 호텔 또는 미정 ✈ 항공: 비엠펙 항공 (VJ 항공) 📍 포인트: 하롱파크 (\$50상당) 🍷 특식: 3회(오삼불고기/라비엣 레스토랑/노니보섬 정식) 🕒 쇼핑: 4회</p>	<p>하나골프 AVGF10 [골프+관광] 36H + 4명이상 출발가능 하노이 골프+하롱베이 5일</p> <p>총 상품가격 1,099,000원~ 현지지출: 가이드+기사장비 \$40/선택장비 있음</p> <p>☎ 호텔: 4성급 호텔 또는 미정 ✈ 항공: 비엠펙 항공 (VJ 항공) 📍 포인트: 마스크팩+간식바구니 현지 제공 🍷 특식: 2회(오삼불고기/센 레스토랑 뷔페식) 🕒 쇼핑: 3회</p>
--	---

무안출발 하노이 전세계 공통 혜택

- 무제한 생수 제공
- \$50 상당 비경투어 패키지, 골프(AVGF10)상품 한정
- 푸드팩 제공 (단독여행상품 제외)

* 푸드팩(밥, 누룽지, 김, 스낵류) 구성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함료, 관광진흥개발기부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대금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행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장비] 가이드장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 ■ [여행상품 내용]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장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장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속이벤트 신청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립자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총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고동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칭찬/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민 보증보험 22억 (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장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장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장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 여행 유망 2 ● 여행 자재 3 ● 필수 권고 4 ● 여행 금지